

연아의 여운 ...

“실수속 210점대 대기록 ...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죠”

“대회 때마다 여운을 남기는 게 더 발전할 기회가 되는 거죠”
 ‘피겨퀸’ 김연아(19)는 발전하는 선수다. 지난 3월 세계피겨선수권대회에서 여자 싱글 사상 최초로 ‘마(魔)의 200점대’(207.71점)를 돌파했던 김연아는 7개월 만에 치른 2009-2010 시즌 첫 대회에서 자신이 세운 역대 최고 기록을 가볍게 넘어섰으며 또 한번 피겨 팬들을 흥분시켰다.
 200점대 점수를 기적이라고 생각했던 팬들은 김연아가 210점대(210.03점)를 기록하면서 ‘과연 한계는 어디까지인가?’라는 의문을 품게 됐다.
 이에 대해 김연아는 18일(한국시간) 오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대회를 결산하며 “솔직히 실수가 있었는데도 최고점을 세우면서 앞으로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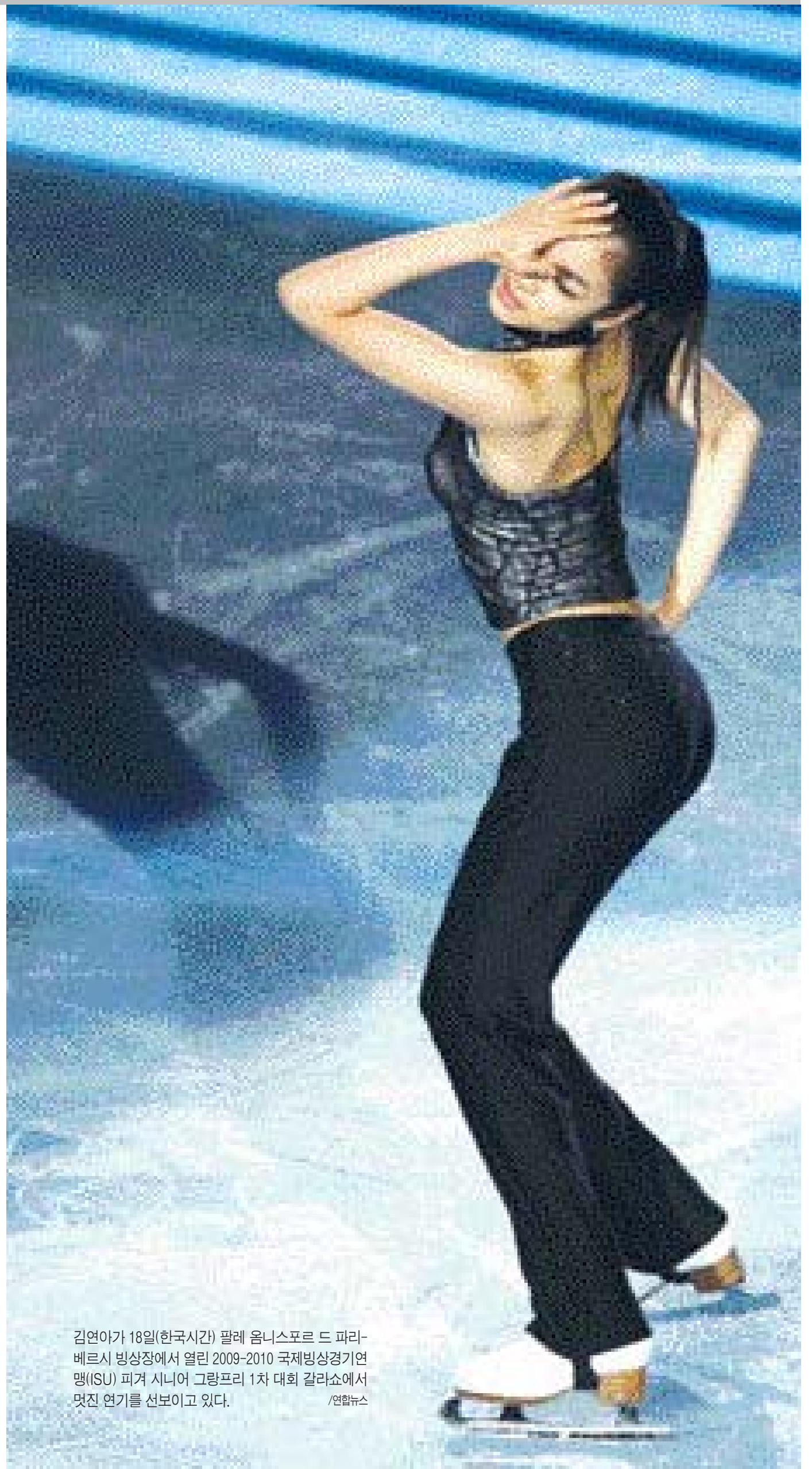
는 생각이 들었다”며 220점대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강심장? 타고난 성격이죠”=김연아를 따라다니는 수석어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강심장’이다. 실수를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빨리 극복해 나머지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다. 김연아는 2009-2010 ISU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1차 대회 프리스케이팅에서 아예 트리플 플립 점프를 뛰지 못했다. 스케이팅이 얼음에 끼면서 점프 타이밍을 놓친 것. 관중은 ‘아~’하는 탄식을 쏟아냈지만 김연아는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역대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 최고점(133.95점)을 기록했다.
 ◇여운을 남긴 대회 “그래야 발전한다”=김연아는 이번 대회 프리스케이팅에 트리플 플립 점프를 아예 건너뛰는 건박한 상황을 겪었지만 오히려 210점대 돌파라는 대기록을 남겼다.
 김연아는 “세계 선수권대회 때 다른 분들이 ‘받을 점수를 받았다’라는 평가를 해줬지만 솔직히 기적이었었다”라며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실수했음에도 오히려 점수가 더 높아져 ‘앞으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든다”라고 말했다.
 ◇연이은 신기록 행진 “부담은 없어요”=김연아는 두 개 대회 연속 역대 최고점 기록을 갈아치웠다. 더구나 이번 대회가 시즌 첫 번째 대회임에도 210점대 돌파에 성공했다. 이 때문에 팬들은 2009-2010 시즌 첫 대회부터 엄청난 기록을 달성한 게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김연아는 “솔직히 부담도 되지만 지금은 점수에 신경을 쓰기보다 내가 해야 하는 연기를 제대로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며 “항상 직전 대회와 비슷한 점수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지난 2월 4대륙선수권대회 이후 점수가 계속 향상되고 있지만 욕심을 내지는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작은 아이디어로 끌어올린 작품성=김연아의 쇼트프로그램인 ‘영화 007시리즈 주제곡’은 이번 대회 최고의 관심거리였다. 남자 선수들이 갈라쇼 프로그램으로 주로 쓰던 음악을 쇼트프로그램에 사용하면서 어떤 작품이 나올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결과는 대성공. 쇼트프로그램 역대 최고점(76.12점)에 단 0.04점 차이인 76.08점을 받으며 호평을 받았고, 의상과 안무의 조화가 뛰어났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연합뉴스



김연아 세계랭킹 1위 복귀

‘피겨퀸’ 김연아(19·고려대)가 141일 만에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여자싱글 랭킹 1위 자리를 되찾았다.
 ISU가 19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여자싱글 세계랭킹에 따르면 김연아는 랭킹포인트 3천960점으로 카롤리나 코스트너(이탈리아·3천861점)를 2위로 밀어내고 1위로 올라섰다.
 김연아는 지난 3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면서 랭킹 포인트 4천652점으로 코스트너(4천635점)를 2위로 끌어내리고 3위에서 두 계단 뛰어오른 1위가 됐다.
 그러나 새 시즌이 시작되면서 김연아는 세계랭킹 산정방식에 따라 2006-2007 시즌 세계선수권대회 동메달과 그랑프리 파이널 우승, 그랑프리 시리즈 2차 대회 동메달 및 4차 대회 우승에 따른 랭킹 포인트가 소멸해 2위로 내려앉았다.
 하지만 김연아는 지난 18일 막을 내린 2009-2010 ISU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1차 대회 우승으로 랭킹 포인트 400점을 획득, 코스트너를 제치고 1위를 되찾았다.
 김연아에 이어 은메달을 차지한 아사다 마오(일본)는 3천779점으로 3위를 기록했고, 조애니 로세트(캐나다·3천68점)가 그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아사다 마오가 18일 열린 2009-201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1차 대회 갈라쇼에서 부채연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연아가 18일(한국시간) 팔레 옴니스포드 파라-베르시 빙상장에서 열린 2009-201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1차 대회 갈라쇼에서 멋진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양용은 ‘왕중왕’ 도전

메이저 챔피언들끼리 샷 대결 오늘밤 PGA 그랜드슬램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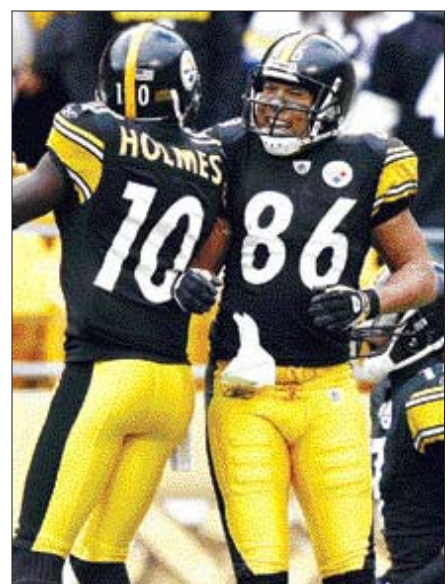
‘호랑이 사냥꾼’ 양용은(37·테일러메이드·사진)이 이번에는 2009시즌 미국프로골프(PGA) 메이저 우승자들만 겨루는 이벤트 대회에 출전해 ‘왕중왕’ 자리에 도전한다.
 18일 경기도 용인 레이크사이드골프장에서 끝난 제25회 신한동해오픈에서 선두에 5타 뒤진 공동 10위를 차지한 양용은은 곧바로 대회가 열리는 버뮤다로 출국했다. 20일 밤 10시30분(이하 한국시간) 버뮤다 사우샘프턴의 포트 로열 골프장(파70·6천824야드)에서 열리는 제27회 PGA 그랜드슬램 대회는 올해 마스터스와 US오픈, 브리티시오픈, PGA 챔피언십의 우승자 4명이 모여 2라운드 열리는 이벤트 대회다.
 8월 PGA 챔피언십 최종라운드에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를 물리치고 아시아 사람으로는 최초로 메이저대회를 제패한 양

용은은 이 대회에서 양헬 카브레라(아르헨티나)·루카스 클로버·스튜어트 싱크(이상 미국)와 우승컵을 다툰다.
 총상금 135만달러가 걸려 있으며 우승자에게 60만달러가 주어지며 최하위인 4위를 해도 20만달러를 받을 수 있다. 양용은의 가장 큰 적은 역시 체력이다. 미국 대표팀과 세계 연합팀이 겨루는 프레지던트컵을 마치고 부러부러 한국으로 이동해 13일 입국, 바로 스킨스게임에 출전하는 등 강행군을 펼친 양용은은 18일 신한동해오픈이 끝나자마자 또 비행기에 올라 북대서양에 위치한 버뮤다로 떠났다. 시차 적응은 둘째 치고 여독도 채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2라운드 경기를 소화해야 하는 부담을 얼마나 이겨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부담없이 칠 수 있는 이벤트 대회기 때문에 양용은은 특유의 마음을 비운 샷을 휘두르기 시작한다면 또 한 번 일출을 내지 말란 법이 없다. 골프 전문 케이블-위성 채널인 J골프가 1.2라운드를 중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워드, 두경기 연속 터치다운

미국프로풋볼(NFL) 피츠버그 스틸러스에서 뛰는 한국계 선수 하인스 워드(33)가 2009 정규 시즌 개막 이후 두 경기 연속 터치다운을 기록했다.
 와이드 리시버인 워드는 19일(이하 한국시간) 피츠버그 홈구장인 하인즈 필드에서 열린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 정규 시즌 6주차 경기에서 159야드를 전진하며 터치다운도 찍었다.
 지난 5주차 경기에서 올 시즌 첫 터치다운을 올렸던 워드는 7-0으로 앞서던 2쿼터 종료 4분28초를 남겨 두고 쿼터백 벤 로슬러버거의 52야드 패스를 받아 터치다운을 성공했다.
 워드는 이날 경기에서 8번 패스를 받아 양팀을 통틀어 가장 긴 159야드를 전진하며 맹활약했다.
 피츠버그는 클리블랜드를 27-14로 꺾고 올 시즌 4승2패를 거뒀다. 피츠버그는 26일 하인즈 필드에서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7주차 경기를 치른다. /연합뉴스



NFL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한국계 선수 하인스 워드(86번)이 19일(한국시간) 피츠버그 홈구장에서 열린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 경기 2쿼터에서 터치다운을 성공시킨 후 팀 동료와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주영 맹활약

PK 유도 등 팀 승리 견인

프랑스 프로축구 무대에서 활약 중인 박주영(24·AS모나코)이 페널티킥을 유도하는 등 팀의 두 골 모두에 관여하면서 리그 2연승에 큰 몫을 보냈다.
 박주영은 19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모나코 루이2세 경기장에서 열린 RC랑스와 2009-2010 프랑스 프로축구 정규리그(리그 1) 9라운드 홈 경기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골타임을 뛰었다.
 지난 5일 올랭피크 마르세유와 8라운드 원정경기(2-1 승)에서 결승골을 넣었던 박주영은 비록 득점포를 다시 가동하지는 못했지만, 팀의 두 골을 모두 만들어내면서 2-0 완승을 이끌었다.
 모나코는 박주영의 활약으로 2연승을 거두고 6승3패(승점 18)가 돼 지난 라운드와 변함없이 4위를 지켰다.
 국가대표팀에 합류해 14일 세네갈과 친선 경기를 치르고 이튿날 프랑스로 돌아갔던 박주영은 이날 4-2-3-1 포메이션의 최전방 원톱으로 뛰었다. /연합뉴스